

SAMSUNG

벨기에 베스트 브랜드 '1위'

유럽 마케팅 기업·독 시장조사업체 주최 소비자 수천명 '점유율·호감도' 설문조사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따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9 베스트 브랜드 벨기에' 어워드에서 올해 최우수 브랜드 1위로 낙점됐다.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는 유럽 마케팅 기업 서비스플랜 그룹과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점유율과 브랜드 호감도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 수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서비스플랜과 GfK가 공동 주최한 베스트 브랜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가전 업계 한류 열풍이 거세다. 삼성전자가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최고의 브랜드'임을 확

가전업계 한류 열풍

고히 한 가운데, LG전자도 올레드 TV 부문 앞선 상품성을 앞세워 북미 시장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美 최고의 TV로 인정받아

LG전자 '2018년형 65인치 올레드 TV' 컨슈머리포트 "우수한 성능·가격" 호평

LG전자 올레드 TV가 소니 올레드 TV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살만한 TV로 인정받았다. QLED TV도 최우수 TV에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당장 살 수 있는 최고의 TV'로 LG전자 2018년형 65인치 올레드 TV를 선정했다. 지난 해 출시된 250여개 제품 중 1위다.

평가 기준은 제품 성능과 가격 등이다. 컨슈머리포트는 LG 올레드 TV가 우수한 성능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호평했다. 소니 올레드 TV도 베스트 TV에 포함됐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뒤쳐졌다.

LCD 부문에서도 LG전자는 소니에 판정승했다. 70인치 이상 슈퍼사이즈 부문에 LG전자 4K



LG전자 올레드 TV는 미국 컨슈머리포트에서 가장 살만한 제품에 선정됐다. /LG전자

UHD 스마트 TV와 소니 4K UHD TV가 오른 가운데,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제품이 600달러 이상 저렴하다며 더 낫다고 평가했다.

최우수 TV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섰다. 65인치 크기 LG전자 나노셀 TV와 삼성전자 QLED TV가 우수한 영상 표현과 높은 음질 표현이라며 호평받았다. /김재용 기자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엔지니어링, 수주 목표 '청신호' 2분기 '대형 프로젝트' 실적 기대 ↑

알제리 정유공장 수주 가능성 '高' 2분기 매출 증가도 본격화될 전망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수주 목표 6조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상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가운데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 규모만 58억달러(약 6조 5900억원)에 달한다.

관계사 물량이 대부분인 비화공부문 수주가 연평균 3조원 규모임을 감안, 상반기에 연간 수주 목표 달성도 가능한 수준이다.

우선 북아프리카 최대기업 소나트랙이 발주한 알제리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해당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트랙은 공사비 총 25억원에 달하

는 이번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이 성공할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의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은 더 수월해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6조6000억원으로 제시, 알제리 프로젝트만 수주해도 약 3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알제리 프로젝트 외에도 현재 입찰 예정중인 프로젝트가 상당하다. 태국 PTT GC가 발주한 미국 ECC 프로젝트, 이집트의 PDH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르잔 육상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정유 프로젝트 등에 올 2분기 안에 입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부터 매출 증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김치호 연구원은 "두름 정유공장, 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의 원유처리시설 프로젝트 등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매출 증가세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 G8 씽큐' 체험단, 경쟁률 200대 1 '치열'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체험하려는 소비자의 열기가 뜨겁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LG G8 ThinQ (씽큐·사진)' 체험단 모집 행사에 1만60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전문 블로거를 제외한 일반인 체험단 80명을 모집했다.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체험단에 지원한 셈인데, 이는 LG전자가 지난해 LG G7 씽큐나 LG V40 씽큐의 체험단을 모집했을 때와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난 숫자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주 구매 연령층



인 20~35세 비중이 전체 지원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도 고무적이다. 지원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7:3 정도였는데, 여성 지원자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20~35세로 나타났다.

LG G8 씽큐는 89만7600원의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두루 갖췄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가족사랑 약속

엘로카펫이 보이면, 차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약속 '엘로카펫'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약속하세요!

엘로카펫이란?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설치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 앞이나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엘로카펫'을 후원합니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